

컨트리리스크 모니터링

('19. 3. 1 - 5. 31)

▲	20,000	00%	AA	AA3
▼	10,000	2.5%	BB	B2
▼	30,000	1.0%	C	Caa1
▲	50,000	1.20%	A+	AA
▲	50,000	1.20%	A+	AA
▲	50,000	1.20%	A+	AA



컨트리리스크 모니터링

I. 신용등급 현황	3
------------	---

II. 국가별 컨트리리스크 모니터링	5
---------------------	---

작성

책임조사역 이자호 (6255-5705)	leejaho@koreaexim.go.kr
-----------------------	-------------------------

책임조사역 김희원 (6255-5720)	kheewon@koreaexim.go.kr
-----------------------	-------------------------

책임조사역 윤서희 (6255-5725)	shyoon@koreaexim.go.kr
-----------------------	------------------------

1. 등급 변동 국가('19.3.1~5.31)

오만 (등급 하락: ▼)

- Moody's는 오만의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누적에 따라 높아진 대외차입 의존도를 고려하여 신용등급 하향 조정 (Moody's: Baa3 → Ba1)

베트남 (등급 상승: ▲)

- 국제신용평가사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정치적 안정 등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이집트 (등급 상승: ▲)

- Moody's와 Fitch는 IMF 권고에 따른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충실한 이행으로 재정수지 적자 비중 감소, 외환보유고 상승 등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Moody's: B3 → B2, Fitch: B → B+)

모니터링 국가 신용등급 현황

(‘19.5.31자 기준)

국가	Moody's				Fitch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2월말	3월말	4월말	5월말
오만	Baa3	Ba1	Ba1	Ba1	BB+	BB+	BB+	BB+
베트남	Ba3	Ba3	Ba3	Ba3	BB	BB	BB	BB
이집트	B3	B3	B2	B2	B	B+	B+	B+

모니터링 국가 당행 국별신용도 현황

(‘19.5.31자 기준)

국가	‘17년 말	‘18년 말	‘19. 5월 말
오만	B2	B2	B2
베트남	C1	C1	C1
이집트	D1	D1	D1

1. 오만

가. 국가신용등급 동향

Moody's, 재정·경상수지 적자 누적에 따른 대외차입의존도 상승으로 신용등급 하향 조정

- Moody's는 오만의 높은 석유산업 의존도로 인해 국제유가 하락세가 시작된 '14년 하반기 이후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당분간 대외차입 증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19년 3월 동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정부부채/GDP(%) : 4.9('14) → 32.5('16) → 51.0('18) → 58.9('20)

오만 국가신용등급

OECD		Moody's		Fitch	
Rating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4		Ba1	Negative	BB+	Stable

나. 평가요소별 동향

경제 분야 : 쌍둥이 적자 지속으로 정부부채 증가

- (거시경제) 석유 부문이 GDP의 35% 및 상품수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재정수지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19~21년 국제유가가 배럴당 62~63달러* 수준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국제유가 추이(달러/배럴) : (1월) 58.74 → (2월) 63.83 → (3월) 66.37 → (4월) 70.78 → (5월) 69.97 → (6월) 61.29

- (부채현황)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대외차입이 증가하여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14년 4.9%에서 '18년 51% 까지 증가하였으며, 불리한 국제유가 전망으로 인해 정부차입은 점차 증가하여 '21년에는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오만 정부는 국부펀드 및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등 비교적 풍부한 유동자산(GDP의 41% 수준)을 활용하여 대외차입의 증가속도를 완화하고 있으나, 건축 재정운영, 비석유 부문 육성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정치·사회 분야 : 권력 후계구도 불명확

- 1970년 즉위한 Qaboos 국왕이 안정적으로 집권 중이나, 슬하에 자녀가 없고 최근 고령(79세)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권력 후계와 관련한 정치적 불안요소가 존재함.

다. 향후 전망 : 당행 신용등급 하향 조정 검토

유가 회복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적자 및 외채 증가는 지속될 전망

- 국제유가는 당분간 오만의 재정적자 시현을 위해 필요한 수준(배럴당 90달러)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오만 정부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유동자산 활용(국부펀드 및 외환보유액 감소) 및 대외차입 증가가 불가피한 바, 당행은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할 예정임.

-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 평가시 당행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2. 베트남

가. 국가신용등급 동향

국제신용평가사,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정치적 안정 등을 감안하여 신용등급 상향 조정

- '19.4월 국제신용평가사는 베트남 정부의 제도 개혁으로 인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대외거래 수지가 양호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10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등급을 상향 조정함.
- 앞서 '18.8월 Moody's는 베트남의 경제성장 지속 및 무역·투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B1→Ba3)하였고, '18.5월 Fitch도 높은 경제성장률, 외환보유액 증가 등을 감안하여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BB-→BB)하였음.

베트남 국가신용등급

OECD		Moody's		Fitch	
Rating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5		Ba3	Stable	BB	Stable

나. 평가요소별 동향

경제 분야 : 내수소비 증가 및 수출 확대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세 지속

- (거시경제) 베트남은 2012년 이후 연 평균 6.2%의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음. 2018년에도 제조업·서비스업 분야 노동생산성 향상 등으로 인해 전년(6.8%)보다 높은 7.1%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내수요 증가 및 국제유가 상승, 베트남 동(Dong)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3.8% 수준으로 전년(3.5%)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 (부채현황) 외환보유액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경상수지 흑자 시현 등으로 인해 '18년 말 기준 541억 달러 규모로 '17년 말(491억 달러) 대비 증가하였음. 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4.7%로 양호한 수준이며, 외환보유액도 단기외채의 2.1배 수준으로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정치·사회 분야 : 응우옌 푸 중(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의 국가주석 겸직

- 베트남은 당서기장·총리·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음. 쩐 다이 꾸안(Tran Dai Quang) 주석의 사망('18.9.21)으로 인해 정권 승계 과정에서 정치적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2018년 10월 응우옌 푸 중(Nguyen Phu Trong) 공산당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직하여 정치적 안정성이 제고됨.

다. 향후 전망 : 당행 신용등급 유지 예정

- 베트남 정부는 공공부채 관리, 국영기업 개혁, 은행 건전성 제고 등을 통한 경제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FDI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민간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베트남은 2018년 11월 비준한 '포괄적·진보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을 통해 더욱 많은 수출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나,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 주도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3. 이집트

가. 국가신용등급 동향

Fitch와 Moody's, 재정수지 적자 비중 감소, 외환보유고 증대 등 경제지표 개선으로 신용등급 상향 조정

- Fitch와 Moody's는 이집트 정부가 IMF 구제금융 수혜의 조건으로 에너지 보조금 철폐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정수지 적자 비중 감소*, 외환보유고 증대** 등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2019년 3월 및 2019년 4월 동국의 신용등급을 각각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 재정수지/GDP(%) : -11.3('14) → -10.9('15) → -12.5('16) → -10.4('17) → -9.5('18)

** 외환보유고(백만달러) : 10,797('14) → 12,123('15) → 19,735('16) → 32,072('17) → 37,642('18)

이집트 국가신용등급

OECD		Moody's		Fitch	
Rating	Rating	Outlook	Rating	Outlook	
5	B2	Stable	B+	Stable	

나. 평가요소별 동향

경제 분야 : 경기회복세 지속, 양호한 외채 수준

- (거시경제)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으로 인한 민간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치안 강화를 통한 관광산업 회복 및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8년 기준 5.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관광수입 회복, 해외 자국민 노동자 송금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8년 기준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4% 수준까지 개선됨.

* 경상수지/GDP(%) : -0.9('14) → -3.7('15) → -6.0('16) → -6.1('17) → -2.4('18)

- (부채현황) 총외채잔액은 IMF 구제금융 도입, 국채 발행, 국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37.3%, D.S.R은 6.5%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IMF 권고에 따른 경제개혁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관광객 수 증가에 힘입어 2018년 기준 외환보유고는 376억 달러(월평균수입액 5.2개월분)으로 증대됨.

* 총외채잔액(백만달러) : 48,459('15) → 67,641('16) → 82,886('17) → 93,066('18)

정치·사회 분야 : 엘시시 대통령, 2018년 연임 성공으로 안정적 정권 유지

- 2018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엘시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IMF 요구사항 이행에 따른 고강도 긴축정책 실시에 따라 2018년 기준 20% 이상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11%에 달하는 실업률로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다. 향후 전망 : 당행 신용등급 상향 조정 검토

경기회복세 지속 및 엘시시 정부의 안정적인 집권 예상

- 2019년에도 Zohr 가스전에서의 생산량 증가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속 등에 힘입어 5%대 중반의 경제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개혁 프로그램 지속 수행 등으로 만성적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또한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 경기회복세와 엘시시 정부의 안정적 집권이 지속된다면 내년 상반기 평가시 당행 평가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